

# 경제 매크로 이벤트 데이터의 이면분석

최예찬 | 경제/FX/원자재  
02-3779-3519  
yc.choi@sangsanginib.com



QR코드로 간편하게  
상상인증권  
투자전략팀 채널

## 미국 6월 고용: 사라진 월드컵 고용

### 미국 6월 고용 +5.7만명, 예상치 대폭 하회

7/2 발표된 미국 6월 비농업고용자 수는 전월대비 5.7만명 증가에 그치며 시장 컨센서스(+11.5만명)를 절반 이상 하회했다. 반면 실업률은 4.2%로 예상치(4.3%)를 하회하며 오히려 하락했다.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년대비 +3.5%로 완만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. 지난달 보고서의 핵심이 과거치 상향수정이었다면,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정반대의 하향수정이다. 4월 고용은 -3.1만명, 5월 고용은 -4.3만명 조정되어 두 달 합산 -7.4만명이 낮아졌다. 이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 고용 증가폭은 지난달 집계 당시 +18.8만명에서 +11.1만명으로 둔화되었으나, 고용 증가 추세 자체는 유지되었다. 예상을 하회한 고용에 연준의 추가 긴축 경계감은 완화됐고, 정책금리에 민감한 미 국채 2년물 금리가 4.14%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단기물 중심의 금리 하락이 나타났다.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9월 인상 전망도 사실상 소멸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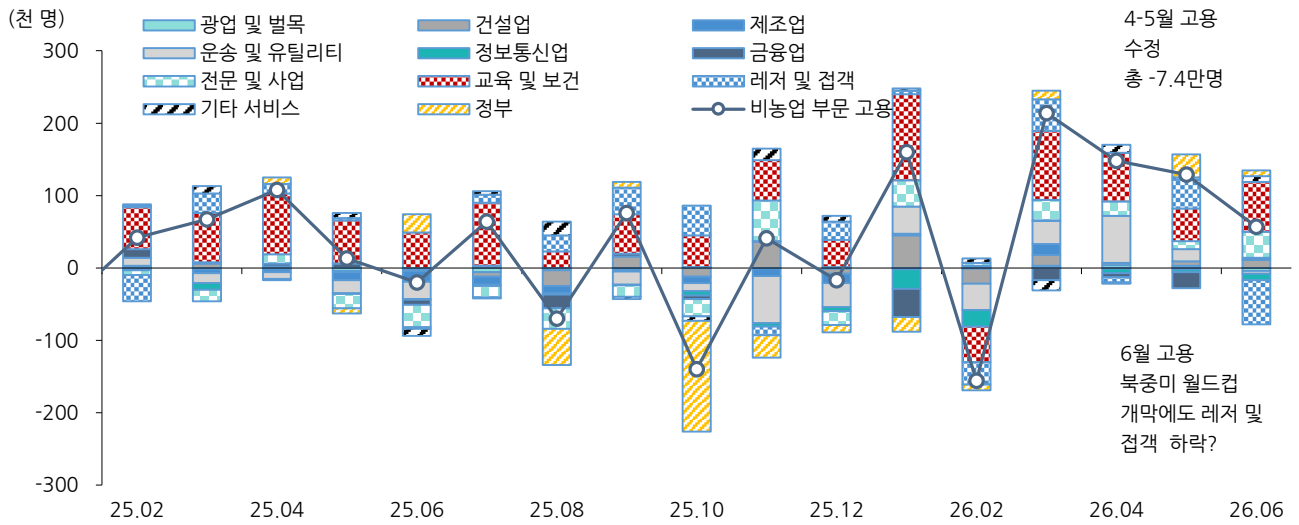
### 6월 레저·접객 -6.1만명은 추후 상향 수정 가능성 높을 것

업종별로는 레저·접객이 -6.1만명(음식·주점 -3.3만, 접객 -2.2만, 예술·오락 -0.6만)으로 감소를 주도했다. 6월 11일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했고 6월 고용조사 기준주간(12일 포함)이 개막 직후였다는 점에서, 시장에서는 월드컵 특수로 레저 업종이 +4만명 안팎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.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배경으로는 계절조정 왜곡이 유력하다. 지난달 서프라이즈였던 5월 레저·접객 고용(+7.0만명)이 이번에 +4.0만명으로 대폭 하향수정된 점을 함께 보면, 월드컵 대비 선제 채용이 5월에 앞당겨 반영됐고 6월은 여름 성수기 채용이 예년 패턴에 못 미치며 계절조정 기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. 월드컵 개최 기간(6/11~7/19)이 조사 기준주간과 본격적으로 겹치는 것은 7월이며, 레저 업종은 초기 집계 응답률이 낮아 수정폭이 크다는 점에서 6월 수치는 추후 상향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. 레저를 제외하면 고용 증가는 교육·의료(+6.9만명)와 전문서비스(+3.6만명)에 집중되었다.

### 그럼에도 남아있는 긍정 신호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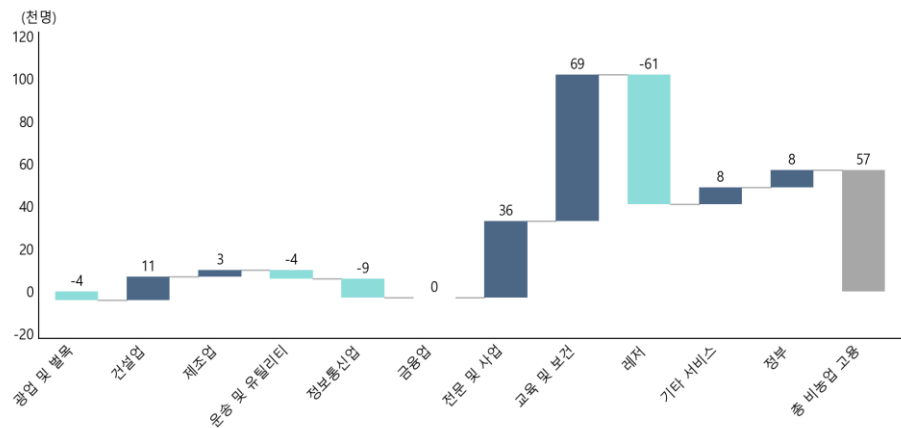
헤드라인 부진에도 세부 지표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요인이 적지 않다. 레저·접객을 제외한 민간고용은 +11.0만명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. 더불어 실업의 질은 오히려 개선됐다. 경기 침체의 선행신호로 주목받는 영구실직자가 -9.5만명 감소했고, 27주 이상 장기실업자(-5.1만명), 경제적 이유의 파트타임 근로자(-12.4만명)도 함께 줄며 광의실업률(U-6)은 7.9%로 0.2%p 하락했다. 해고가 늘어 실업이 증가하는 국면과는 거리가 있다. 마지막으로 고용×근로시간×시급을 종합한 총임금소득지수가 전월대비 +0.4% 증가해 가계 소득 흐름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. 이번 고용 부진이 소비·성장 둔화로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.

그림 1. 월별 비농업 고용 기여도 분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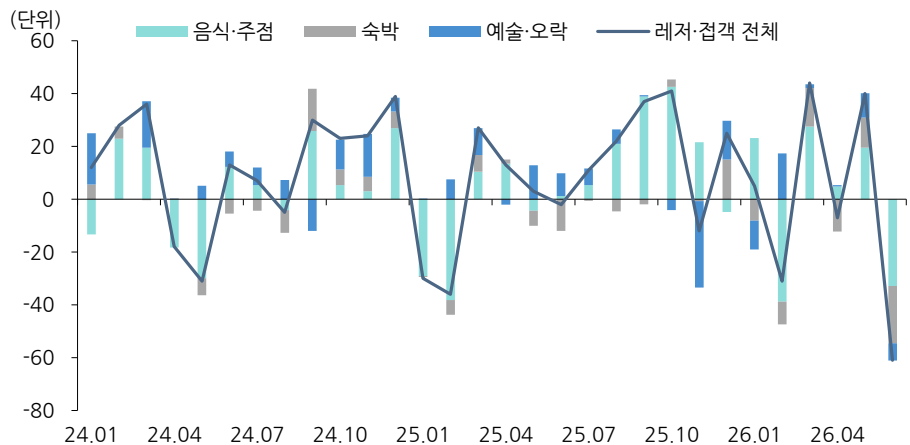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2. 2026년 5월 비농업 부문 고용 분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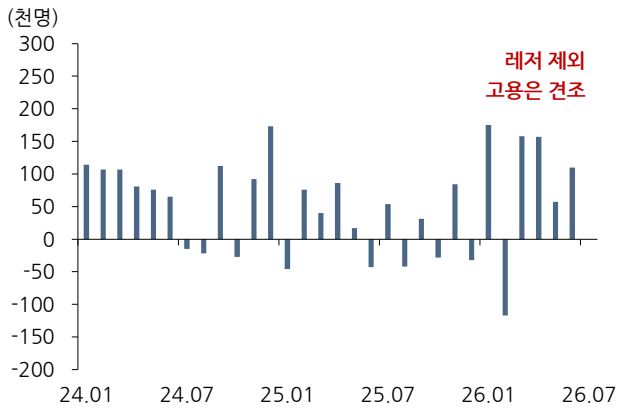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3. 레저 및 접객 업종의 고용 증가 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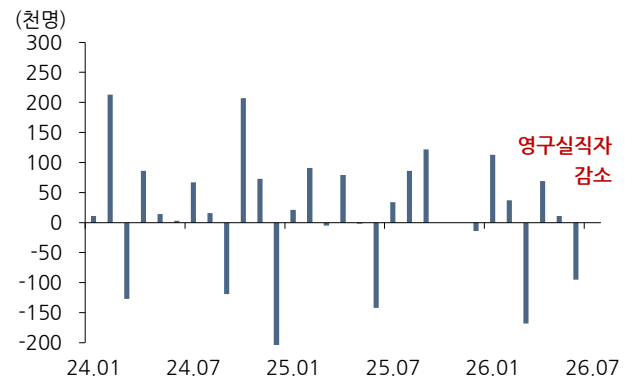
자료: BLS,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4. 미국 레저 제외 민간 고용 증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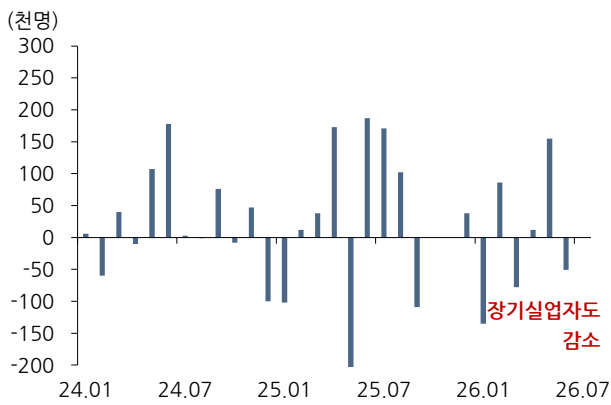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5. 미국 영구실직자 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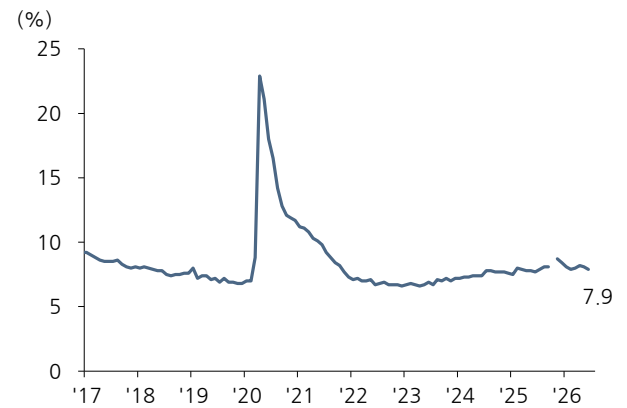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6. 27주 이상 장기실업자 증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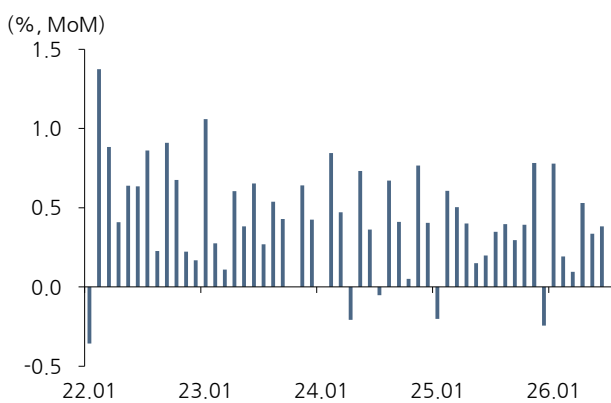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7. U-6 실업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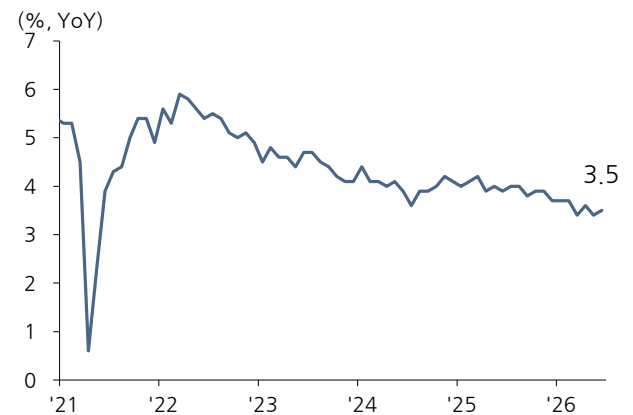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8. 미국 총 임금 지수 변화



자료: Bloomberg,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9.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



자료: Bloomberg,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

 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최예찬)
-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